



탄소중립 시대,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산업·통상전략 점검한다

- 수출·에너지 기업 및 전문가 참석하는 제1회 「에너지통상포럼」 열려
- 기후변화·에너지 관련 보호무역주의적 조치 대응 방안 점검
-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제고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.8.(수) 한국무역협회에서 에너지·통상 분야 업계 및 전문가 참석하에 「에너지통상포럼*」을 출범하고,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
* 주최 : 산업통상자원부, 주관 : 한국무역협회, 민간LNG산업협회 (공동주관)

최근 국제경제 질서가 ‘탄소중립’을 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,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교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와 지원을 도입*하고 있는 상황이다.

*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, 유럽연합(EU) 탄소중립산업법, 일본 청정에너지전환정책 등

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·에너지 관련 정책과 조치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고, 우리 산업계가 ‘탄소중립’ 및 ‘산업발전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동 포럼을 출범하였다.

정인교 본부장은 유럽연합(EU)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각종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,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(CFE) 인증 체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.

참석한 기업인 및 전문가들도 한층 복잡해진 국제 지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,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.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통상전략 점검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부서	신통상전략지원관	책임자	과 장	윤진영 (044-203-4890)
	기후에너지통상과	담당자	서기관	박근형 (044-203-4895)



□ 행사 개요(안)

- (행사명) 제1회 「에너지통상포럼」
 - 주최: 산업통상자원부 , 주관: 한국무역협회, 민간LNG산업협회 (공동주관)
- (주제) “탄소중립과 통상 전략 - 협력적 접근을 통한 변화와 기회”
- (일시/장소) '24. 5. 8.(수) 15:00~17:30 / 무역협회 대회의실(트레이드 타워 51F)
- (참석자)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, 민간LNG산업협회, 에너지·통상 유관 기업 및 전문가 등 150 여명
- (주요내용) 전문가 발표, 토론

□ 세부 일정

시 간		내 용	
15:00~15:20	20'	▶ 개회사	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
		▶ 축사	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
15:20~15:50	30'	▶ 발표 1	“한국의 에너지와 무역 간의 넥서스” 정용헌 前 아주대 교수
15:50~16:05	15'	▶ 발표 2	“우리나라의 에너지 여건과 탈탄소화 방향”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장
16:05~16:20	15'	▶ 발표 3	“기후에너지 통상 전략”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
16:20~17:20	60'	▶ 토론	진행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 패널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
17:20~17:30	10'	▶ 마무리 및 폐회	